

포스코그룹인 포스코케미칼 취업

충남도립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는 최근에 몇 년 동안 포스코제철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취업을 위해 여러 번 문을 두드린 결과 드디어 2022년에 포스코케미칼에 취업자가 나왔다.

POSCO
포스코케미칼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추천한 2021학년도 졸업자 김○호(18학번)에게 취업지원처에서 이력서작성, 면접 등의 지도한 결과 취업문을 통과하였다.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소재본부(양극재·음극재 제조 및 판매), 내화물본부(내화물 제조 및 로재정비), 라임화성본부(생석회 제조, 화성공장 위탁운영 및 화성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포스코케미칼의 배터리소재사업은 44.1% 증가한 3,171억원, 양극재는 48.1% 많은 2722억원, 음극재는 48.1% 많은 2722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양극재는 41만톤에서 61만톤으로 45%, 음극재는 26만톤에서 32만 톤으로 23%씩 목표를 높여 2030년 배터리 소재 양산능력을 기존 계획대비 크게 높임으로써 인력모집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케미칼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취업 조건에 산업기사

자격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높이기 위해 전기기능사 자격증반과 산업기사 자격증반 운영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다양한 필기 및 실기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같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전기전자공학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